

##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결과로 본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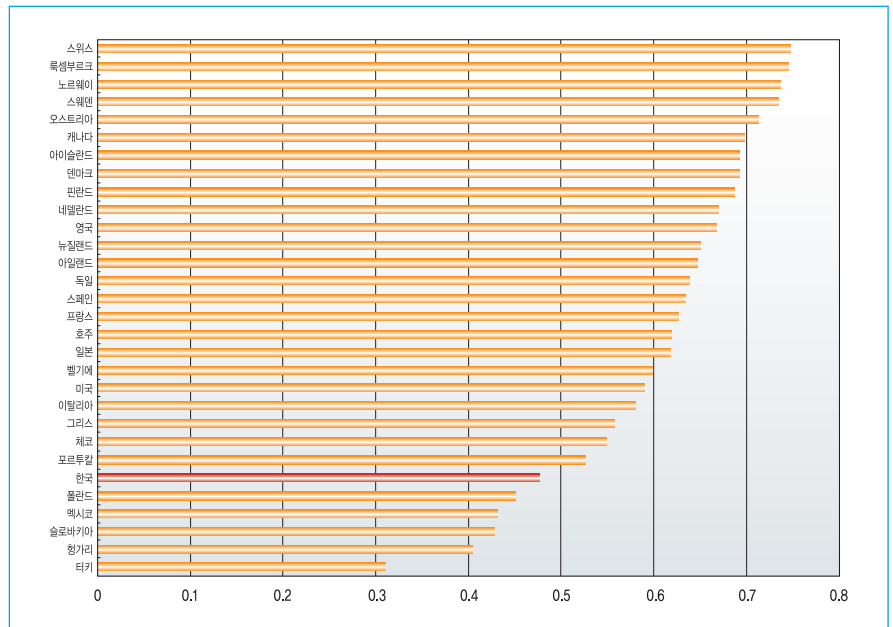
그동안 행복 또는 삶의 질 수준은 국민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들로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,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적 요소, 사회심리적 요소, 환경적 요소, 정치제도적 요소,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이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.

OECD의 '웰빙과 사회진보 측정 (Measuring Well-being and Progress)' 워크숍에서 제시된 NIW(National Index of Well-being)를 활용하여 종합 및 7개 세부 분야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행복 수준(2006년)을 파악 비교해 보았음.

### 1.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 종합 순위

- 경제적 요인, 자립, 형평성, 건강, 사회적 연대, 환경,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 7개 부문을 종합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,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5위를 차지함.
  - 스웨드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, 룩셈부르크, 노르웨이, 스웨덴 순으로 나타났고, 터키가 최하위로 나타남.
  -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동구 사회주의권에 속하였던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, 서구 및 북구 유럽 국가들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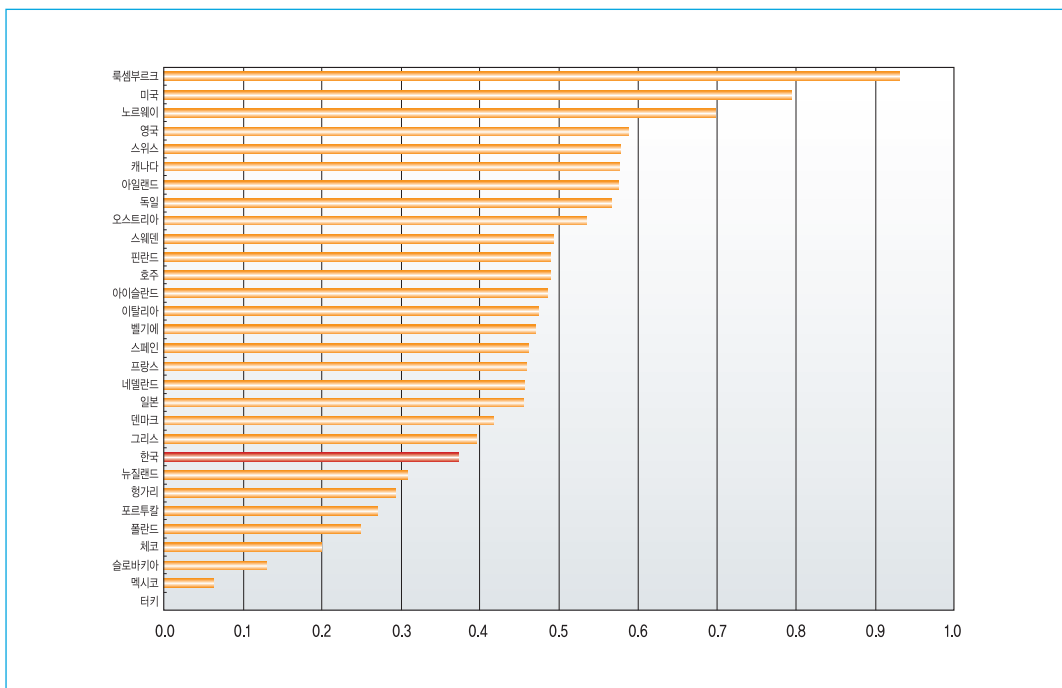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 종합 순위



## 2.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경제 분야 순위

- 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2위를 차지함.
  - 경제 분야는 ① NNI(Net National Income), ② 가처분소득, ③ 여가시간, ④ equally-distributed income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.
  - 경제 분야는 룩셈부르크가 1위를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미국, 노르웨이,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며, 터키가 최하위로 나타남.

[그림 2] OECD 국가들의 경제 분야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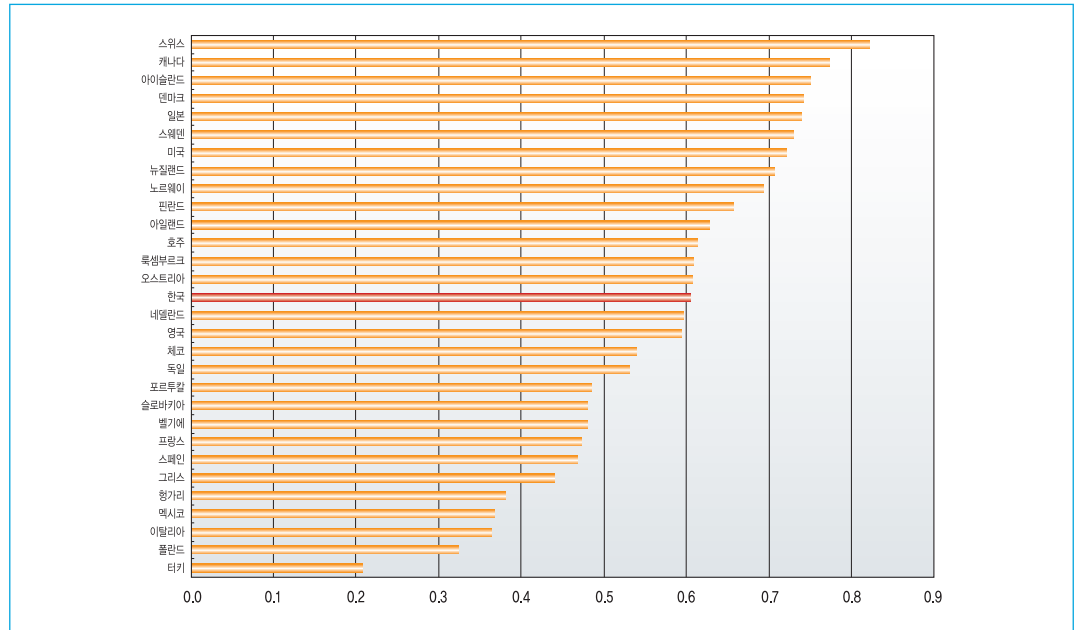


## 3.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사회 분야 순위

### (1) 자립 부문

- 사회 분야의 자립 부문에서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함.
  - 자립 부문은 ① 고용율, ② 미취업 가구원 비율, ③ 평균 교육년수, ④ 평균 학업성취도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.
  - 자립 부문은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캐나다, 아이슬란드, 덴마크 순으로 나타났으며, 터키가 최하위로 나타남.
  - 한국은 7개 부문 중 사회 분야의 자립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.

[그림 3] OECD 국가들의 자립 부문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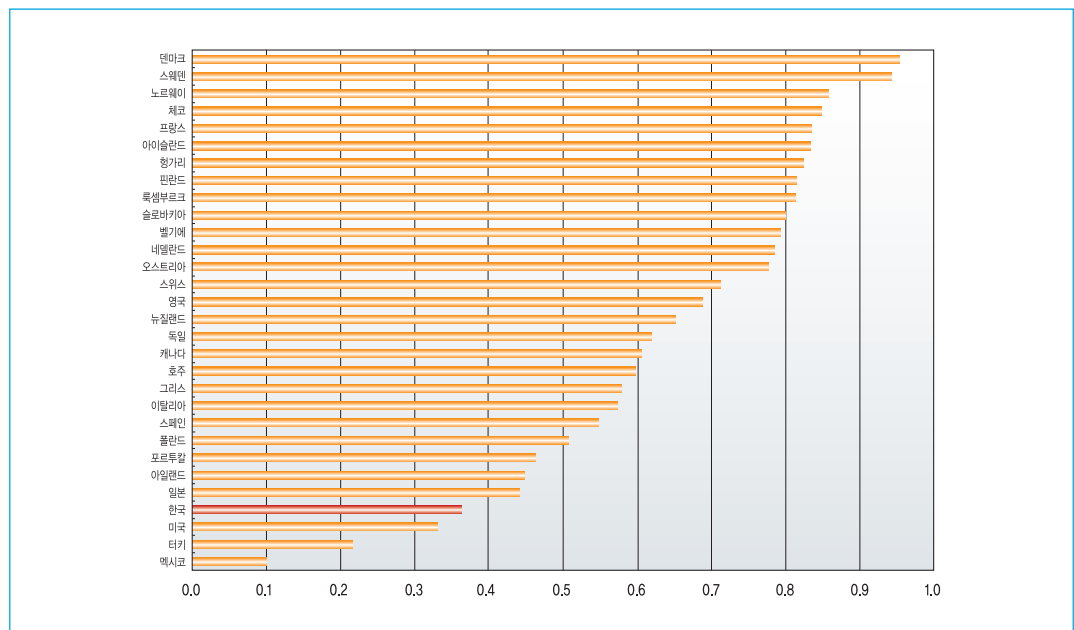


(2) 형평성 부문

□ 사회 분야의 형평성 부문에서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함.

- 형평성 부문은 ① Gini 계수, ② 상대빈곤율, ③ 아동빈곤율, ④ 노인빈곤율, ⑤ 성별임금격차 등 다섯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.
- 형평성 부문에서는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스웨덴, 노르웨이, 체코,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으며, 멕시코가 최하위로 나타남.

[그림 4] OECD 국가들의 형평성 부문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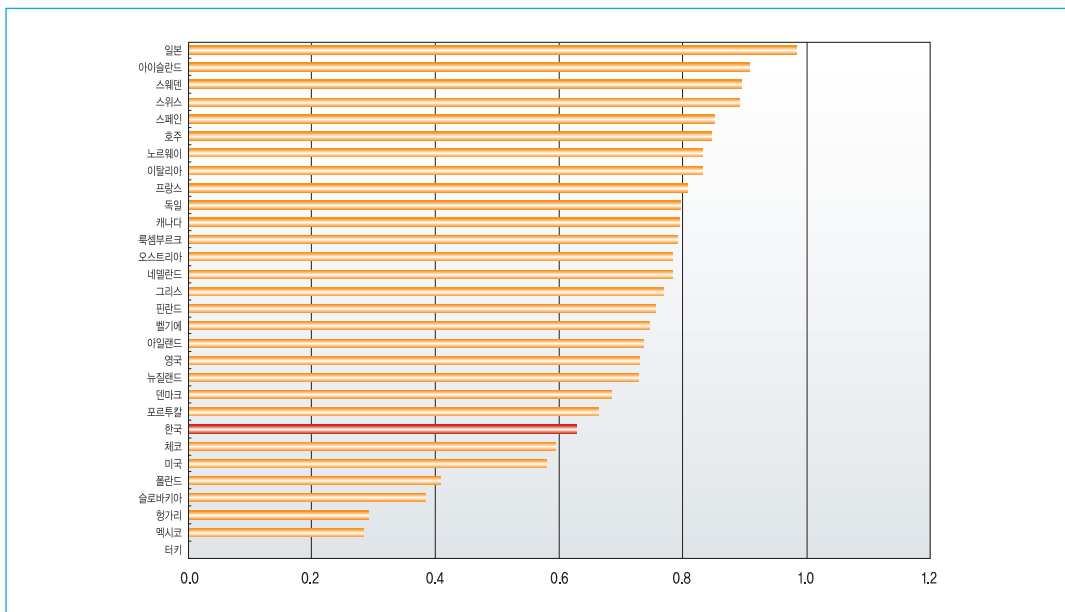


### (3) 건강 부문

□ 사회 분야의 건강 부문에서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3위를 차지함.

- 건강 부문은 ① 출생시 기대수명, ② 건강수명, ③ 영아사망율, ④ 잠재적 수명손실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.
- 건강 부문에서는 일본이 1위를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아이슬란드, 스웨덴, 스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, 터키가 최하위로 나타남.

[그림 5] OECD 국가들의 건강 부문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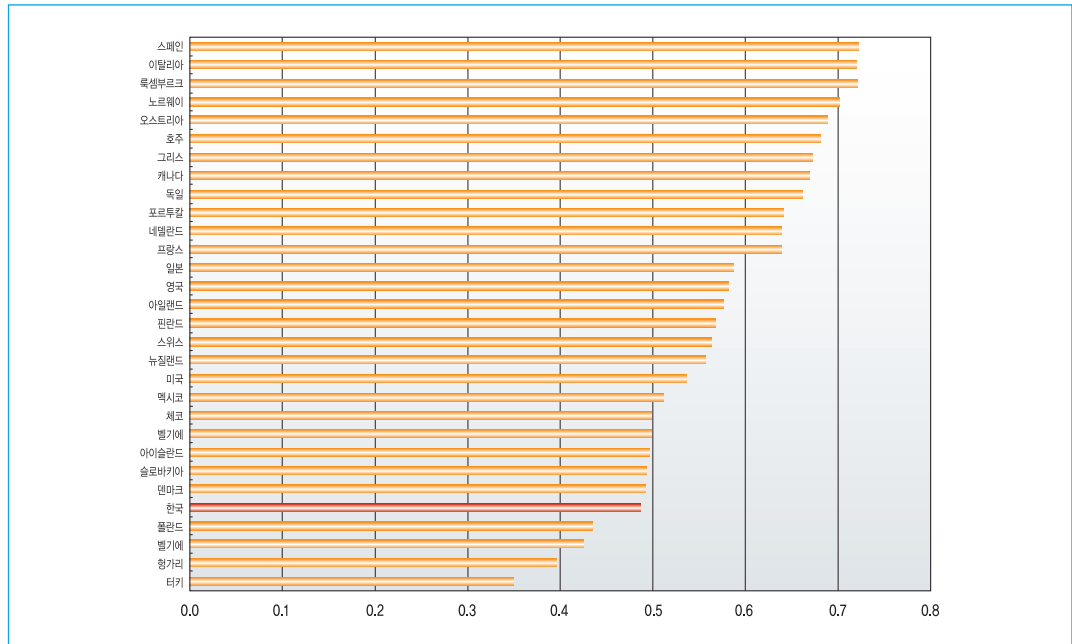


### (4) 사회적 연대 부문

□ 사회 분야의 사회적 연대 부문에서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6위를 차지함.

- 사회적 연대 부문은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, ② 자살율, ③ 감옥수감자 비율, ④ 범죄피해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.
- 사회적 연대 부문에서는 스페인이 1위를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났으며, 터키가 최하위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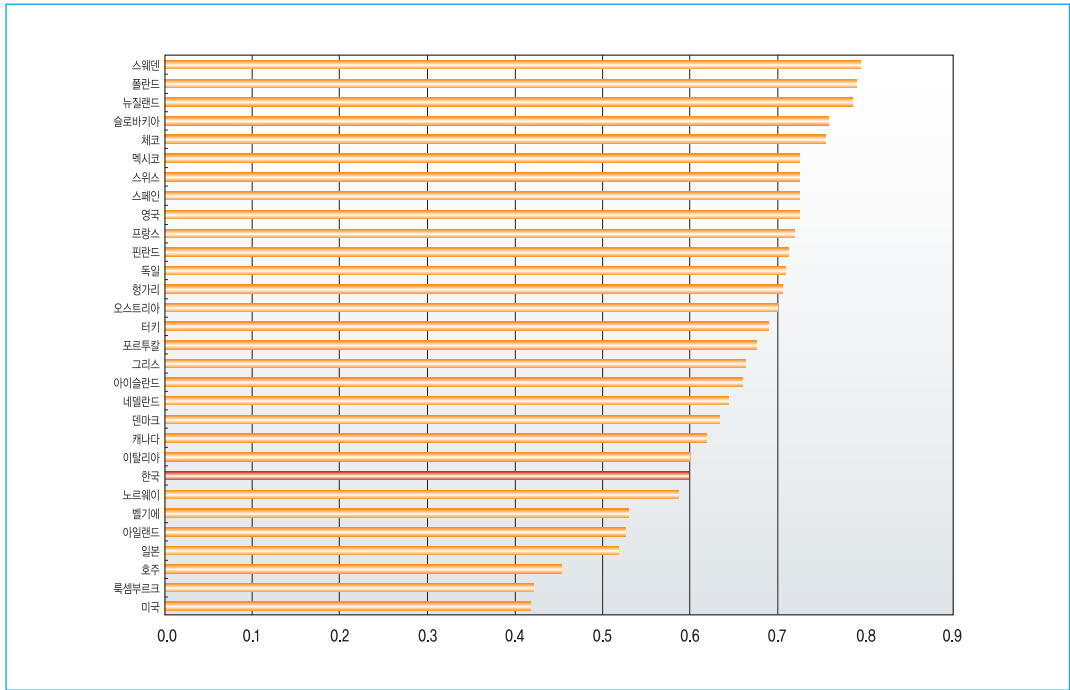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OECD 국가들의 사회적 연대 부문 순위



#### 4.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환경 분야 순위

- 환경 분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세부지표는 ① 1인당 이산화탄소(CO<sub>2</sub>)배출량, ② 수질정화시설 수혜인구비율, ③ 1인당 쓰레기배출량, ④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등 4개 지표였음.
  - 환경 분야 지표의 경우 OECD NIW지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, 측정시점과 측정지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이 분야의 보다 정밀한 측정방법 개발 및 지표 산출이 필요함.
  
- 환경 분야에서의 순위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3위를 차지함.
  -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하였고, 폴란드와 뉴질랜드가 2, 3위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미국은 최하위로 나타났음.

[그림 7] OECD 국가들의 환경 분야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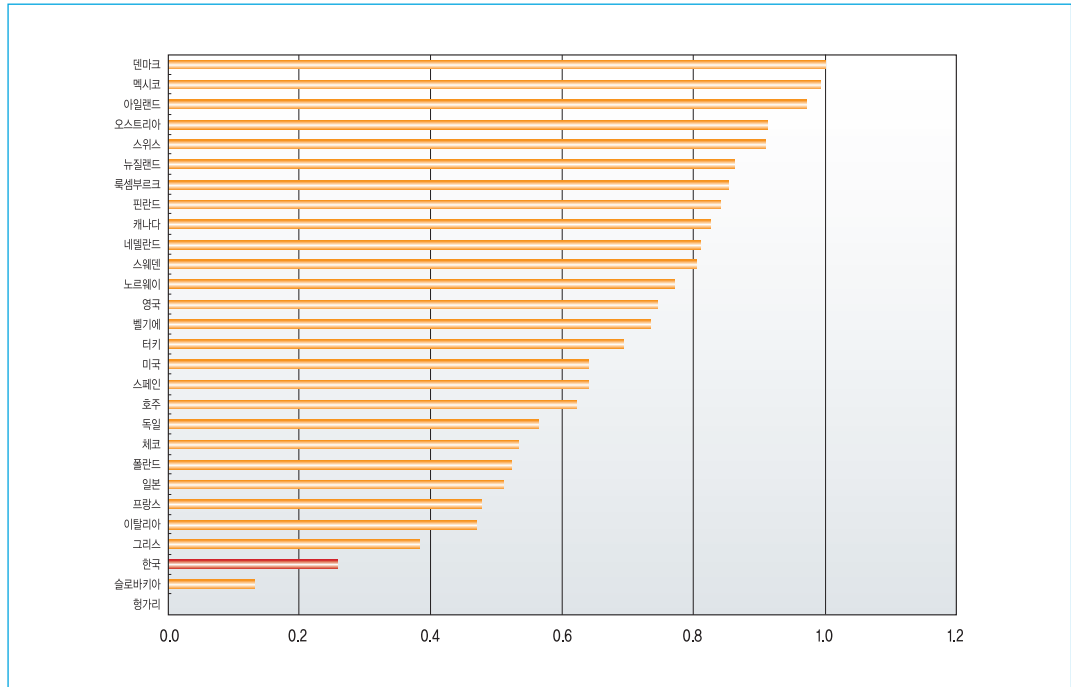


### 5.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주관적 생활만족 분야 순위

- 마지막으로 유일한 주관적 지표인 생활만족 분야에서 한국은 28개 회원국<sup>1)</sup> 중 26위를 차지함.
  - 주관적 생활만족 분야는 10점 척도인 생활만족도 점수를 사용함.
  - 주관적 생활만족 분야에서는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멕시코, 아일랜드, 오스트리아 순으로 나타났으며, 헝가리가 최하위로 나타남.

1) 해당 데이터가 누락된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은 분석에서 제외됨.

[그림 8] OECD 국가들의 주관적 생활만족 분야 순위



## 6. 행복지수 산정 방법

- 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경제적 요인, 자립, 형평성, 건강, 사회적 연대, 환경, 주관적 생활 만족도 등 7개 세부 분야 총 26개 지표에 대해 OECD 30개 회원국의 현황 자료 수집
- 지표값들은 각각 상이한 단위로 측정되었음을 감안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
  - 표준화 방법으로는 각 국가의 특정 지표 수치에서 전체 국가 중 최소값을 빼고 이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함. 단, 역기능 지표의 경우 최대값에서 국가별 지표값을 빼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음.

$$Z_{ij} = \frac{X_i - \min(X_j)}{\max(X_j) - \min(X_j)}$$

$i$ : 지표     $j$ : 국가  
 $\max(X_j)$ : 해당 지표중 최대값  
 $\min(X_j)$ : 해당 지표중 최소값

- 보건복지 분야 국내 전문가 32명으로부터 종합지표 및 분야별 지표의 가중치 의견을 수렴한 후, 이를 적용함으로써 국가별 최종값을 산정하였고, 그 값의 크기로 순위를 결정함.

## 7. 행복지수 산정의 의의 및 향후과제

- 행복지수의 산정의 의의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에 부족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.
  - 행복지수의 산정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교육, 고용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모자람이 없는 반면에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등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  - 동구권에 속했던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서구 및 북구 국가들과는 다소의 격차가 존재함.
  - 각 요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위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음.
  
- 이번에 산정된 행복지수의 우리나라 순위는 기존의 UNDP에서 산정한 인력개발지수(HDI ; Human Development Index)의 2008년, 2009년 순위인 26위와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음.
- 본 연구원에서 산정한 행복지수가 HDI가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소 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 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정된 행복지수는 보다 높은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. 그러나 본 행복지수는 비록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국제적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행복지수의 산정은 일회성 연구의 범위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(매년 혹은 격년), 지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요구됨.

김계연(기초보장연구실 선임연구원) 문의사항(fkky@khasa.re.kr)

윤강재(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원) 문의사항(kjyun@khasa.re.kr)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 
[http://www.k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\\_01\\_01.jsp](http://www.k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_01_01.jsp)